

제천종합운동장 재시공 촉구 결의문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83년 12월부터 '87년 9월까지 (주)동명기술공단이 설계하고 총 사업비 3,942백만원 (건축공사비 2,41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대건설이 제천시 화산동 1번지에 시공한 18,800평 부지에 연건축면적 4,928평 규모의 『제천시 종합운동장』이 최근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철거후 재시공해야 함」으로 종합진단 되었음에 깊이 통탄하며 이에 조속하고 확실한 사후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7년 9월 종합운동장 준공이후 웅벽 표면의 부식과 균열, 철근 조립의 상이 등 상당한 하자가 발생되어 '91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종합운동장 하자발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동 특별위원회의장에서 현대건설의 김충원 상무가 「시공과 설계가 별도로 되어 있어 시공만 참여했기 때문에 시공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책임질 것을 다짐한다고」 답변을 한 바 있고 이후 수차에 걸친 하자보수가 있었음에도 종합운동장의 구조물에 심각한 열화 상태가 확인되었다.

이에 제천시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 기술원』이 '95년 5월부터 7월까지 종합운동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곳곳에서 운동장의 스탠드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명 한계 초과, 심각한 열화손상, 배합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현저한 콘크리트 강도의 저하, 철근 사용량의 부족과 철근의 간격이 부적정하고 철근의 피복 두께가 얇은 등 전반적인 철근의 배근 상태가 엉망,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치 이상의 변위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후 재시공 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일뿐 아니라 그 동안 사용상 불편했던 점과 사용치 못했던 점은 차치하더라도 금년 9월에 예정이었던 프로 축구 대회 유치의 취소,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천의병항쟁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제등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문화적, 경제적 손해가 당장 목전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공회사인 현대건설과 발주청인 제천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종합운동장의 전면 재시공과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결 의 문

1.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은 법규문제를 논하기 이전,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사용불가 판정받은 종합운동장을 즉시 해체하고 재시공할것을 촉구한다.
2. 종합운동장의 재시공 완공시까지 15만 시민의 운동장 대체 기능을 조성토록 하고, 운동장의 사용 불가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한다.
3. 현대건설에서는 위와 같은 제천시민의 뜻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줄것을 요구하며, 답변이 적절치 못할경우 발생하게 될 15만 시민의 분노와 그로 인해 야기 될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귀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천명한다.
4. 제천시는 여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건립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울것을 촉구한다.
5. 이와 같은 제천시민의 의지가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것을 15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결의한다.

1995. 8. 24.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